

‘CES 2026’ 개막...광주·전남 40개社 혁신기술 선보

〈국제전자제품박람회〉

市, 28개사 AI 중심도시 광주 세일즈

도, 12개사 MOU 등 실질 성과 도출

광주시와 전남도가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6’이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전시관을 마련, 지역 기업의 혁신 기술을 세계 무대에 선보인다.

▶관련기사 13면

올해 CES 2026 주제는 ‘혁신가들의 등장(Innovators Show up)’으로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신기술의 부상 속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에서는 이번 행사에 광주시 지원 기업 17개사를 포함한 지역 혁신기업 28개사가 참가했다.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주도하며 AI 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광주 세일즈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 지원 기업 중 13개사는 광주공동관에서, 4개사는 K-Startup 통합관에서 기술력을 선보인다.

광주공동관에서는 최고혁신상을 거머쥔 ‘엘비에스테크’와 국내 업계 최초 혁신상을 수상한 ‘이노디테크’가 혁신 기술을 세계에 알린다. 여기에 인간안보 가치를 실현한 ‘올더타임’의 ‘더

가이드’ 기술력도 소개한다.

‘인비즈’, ‘데이터투에너지’, ‘제로웰’, ‘스페이스에이아이’, ‘영앤’, ‘유니캡퍼니’, ‘정선메드’, ‘메리랜드’, ‘센도리’, ‘맨인블록’ 등도 혁신 제품을 공개한다.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K-Startup 통합관에는 ‘주미당’, ‘사각’, ‘벨리오니스’, ‘브레인웍스’ 등 지역 4개사 제품이 전시된다.

전남도 또한 CES 2026에서 지역 기업들이 독보적 기술력을 앞세워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독점 계약과 기술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올해 전남은 기술력 면에서 역대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아이아이에스티(재난 감지), ㈜터빈크루(에너지), ㈜유작(XR), ㈜고려오토론(반도체) 등 4개 기업이 총 5개의 ‘CES 혁신상’을 수상하며 전남의 산업 생태계가 데이터와 AI를 축으로 한 첨단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했다.

전남 12개 기업이 참여한 CES 2026 전남관은 데이터와 AI 기술이 접목된 미래형 첨단 솔루션을 집중적으로 선보이며 관람객의 관심을 모았다.

AI 재난감지 솔루션 기업인 ㈜아이아이에스티(AIIST)는 미국 퍼시픽 테크(Pacific Tech and

Innovation Inc)와 북미 시장 진출과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현지 시장 안착을 위한 마케팅과 운영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는 전남의 AI 기술이 북미 공공 안전 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CES 성과를 발판으로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글로벌 데이터·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4GW급 전력망 구축 여건과 신속한 인허가 절차 등 솔라시도의 차별화된 투자 환경을 적극 홍보했다. /변은진·양시원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7일 강진아트홀에서 강진군과 ‘강진만 횡단교량 건설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강진원 강진군수, 차영수 전남도의원, 서순선 강진군의회 의장,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도 제공〉

1천600억 투입 ‘강진만 횡단교량’ 건설 속도

전남도·강진군, 신속 추진 공동 협약

생활권 통합·물류 이동 활성화 기대

전남도는 7일 강진아트홀에서 강진만 횡단교량 건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강진군과 공동협약을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강진원 강진군수, 차영수 전남도의원, 서순선 강진군의회 의장,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강진만 횡단교량 건설사업’은 총연장 25km, 사업비 1천6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지난해 9월 전남도 정책비전투어에서 강진군이 건의한 뒤 공동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에는 2개 추진 방안이 담겼다.

우선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도 819호선을 국도나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는 것을 공동 목표로 설정하고 최우선 반영되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도 건설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총사업비를 전남도 50%, 강진군 50%로 분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남도와 강진군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한 뒤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강진만 횡단교량이 완공되면 강진만을 기준으로 나뉜 생활권이 통합되고, 관광과 물류 이동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등

주변 도로 사업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강진만 횡단교량은 강진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진군민의 교통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전남도, 해양환경정화선 신규 건조

150t급 설계비 국비 4억원 확보

전남도는 7일 “전남 해역의 부유·침적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해양환경정화선 신규 건조 설계비로 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규 해양환경정화선은 인양틀과 크레인 등을 갖춘 150t급 전용 수거선으로 총사업비는 70억원(국비 50%·도비 50%)이다.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로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남은 국내 수산물 생산량 1위 지역으로 긴해안선과 다수의 도서를 보유해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외국 유입 쓰레기와 바다에 침적된 폐기물로 지속해서 늘면서 정화선을 활용한 상시수거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운영 중인 정화선은 1997년 건조돼 선령이 28년에 이르는 노후 선박으로 수거 능력과 안전성에 한계가 있어 대형·침적 해양쓰레기 대응과 안정적 정화작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전남도는 해양수산부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을 이어가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국비 확보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설계 단계부터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부유·침적 해양쓰레기 수거 효율을 높이고 노후 정화선 대체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정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안과 도서지역 해양환경 개선은 물론 해양생태계 보전과 어장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시원 기자

삼성SDS, 해남 솔라시도 첫 공식 방문

국가AI컴퓨팅센터 예정지 시찰

2조5천억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 공모에 단독 참여한 삼성SDS 컨소시엄이 해남 솔라시도에 위치한 건립 예정 부지를 처음으로 공식 방문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삼성SDS를 비롯해 네이버클라우드, 전남도 등 컨소시엄 참여사 관계자 30명이 해남 솔라시도 국가AI컴퓨팅센터 부지를 시찰했다.

앞서 삼성SDS 주도 컨소시엄은 공모 당시 ‘전남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로 부지를 특정해 입찰에 단독 참여했다.

민·관 출자 및 정책금융 대출 등 총 2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국가 AI컴퓨팅센터는

초거대 AI 모델 개발과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고성능 연산 자원을 기업·대학·연구기관에 제공하는 시설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오는 2028년까지 첨단 GPU 1만5천장 이상을 확보, 2030년까지 지속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AI컴퓨팅센터 사업은 지난해 11월 기술·정책평가를 통과했으며 현재 금융심사가 진행 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 추진에 앞서 현장 여건 점검 차원의 방문”이라며 “삼성SDS 컨소시엄과 지속 협의를 통해 국가AI컴퓨팅센터를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시작하는 廣告인네”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렸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 1) 꼬마상가 2억7,000
유동로타리 6차선대로변 코너중심상업지 30평
2층건물 매수즉시 사용가능(1층 점포4칸)주차4대
- 2) 양산동 주거1종 대지110평 시세50%
평당160만원 바로 건축가능 매가1억7,600

- 3) 중흥동6거리 상업지 193평 단층상가
도로코너 평당900 총가 17억3,700만원

급히 구합니다

토지, 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돈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사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